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0일 월요일 음 2월 29일 (6월)

백록담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9°C로, 낮 최고기온은 16-17°C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for Jeju.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3/19°C
모레 흐리고 비 14/20°C

월드뉴스

에콰도르 6.8 지진... 최소 14명 숨져

통신·전력 끊겨 구조 난항

에콰도르 서부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18일(현지시간) 강진이 일어나 에콰도르에서 최소 14명이 숨졌다.



에콰도르 마찰라 지진 현장. 연합뉴스

미한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손실 규모를 평가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에콰도르 지질물리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첫 강진 이후 한 시간 만에 두 차례 소규모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에콰도르 항구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깊이는 66km다.
에콰도르 당국은 옐로에서 12명, 아수아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숨졌고 38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44채가 무너졌고 90여 채가 훼손됐으며 학교 건물 50채와 보건소 30채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산사태로 인해 일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에도 경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오은지

문화체육부장

“당연히 도민 참여가 1번이다”

락을 세우는 것은 운영진의 역할”이라고 했다. 유료와 무료의 딜레마에서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고, 개인 관심사가 아닌 콘텐츠에도 관객들을 공연장, 행사장으로 유인할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일 등이 포함될 테다.

도비 총 18억5000만원이 투입된 도내 최대 규모의 미술행사인 제주비엔날레는 과연 도민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까.

89일간 2개의 주제관(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6만4093명. 이 가운데 도민과 도외 관람객 구분이 가능한 유료관람객 3만1766명 중 36%인 1만1435명만이 도민이었다. 3회 비엔날레는 내년 제4회 행사 개최 시 보완 과제로 도민 관객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와 홍보 채널의 다양화 등을 과제로 남겼다.

비엔날레만이 아니다. 어느 행사건 관객 확보는 과제다. 그리고 미흡한 참여도엔 홍보 전략의 아쉬움이 뒤따른다.

사반세기를 넘긴 제주국제관악제도 ‘대표적인 국내 공연예술축제’란 인식 뒤에 관객 확보란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환갑을 맞은 탐라문화제도 (도민)참여도가 낮음을, 짧은 관객과 함께하는 세대공감·소통의 장이 되기 위한 홍보 전략의 아쉬움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올해도 속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18일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주국제관악제의 ‘봄 시즌’의 막이 올랐다. ‘공연비수기’로 꼽히는 봄에 열려 관객 주변 확대를 노렸지만 개막 공연부터 지역에 따라, 출연진에 따라 공연장의 객석 점유율이 차이를 보인다.

오는 6-7월엔 2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인 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제주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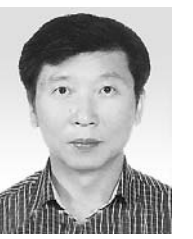
역시나 이들의 고민 지점도 시민들의 참여다.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사전 홍보 및 관람 유도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예술배달 이벤트 ‘아트 딜리버리’다. 발품을 파는 새로운 홍보 시도라는데 일단 기대가 크다.

정민자 지회장은 “연극을 직접 봐야 연극의 맛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올해 연극제가 끝난 후 제주에 ‘관객’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의 바람은 “일단 보여주자”는 전략으로 향한다. 그 마음이 도민 관객에게 가닿기를 바라본다.

좋은 취지의 행사도, 좋은 공연도,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할 관객이 있어야 보다 완벽해진다.

열린마당

위조 상품 근절



현 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누락 세입 4169억원으로 추정된다.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판매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조 상품은 외양만 그럴듯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위조 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고유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산업발전의 큰 장애물이다.

서귀포시는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위조 상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23개 업소에 대해 76개 품목을 적발해 판매 중지, 도용 상표 제거 또는 폐기처분 하도록 시정권고한다. 가장 좋은 위조 상품 근절 방법은 위조 상품을 사지 않는 것이고 싸다고 덤핑 사기보다는 제값 주고 사는 게 현명한 소비자라 생각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112상황실’의 준비



조 석완

제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티 CCTV’ 연계를 통해 도내 방범 CCTV 9000여 대를 통해 112신고 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순찰차량 영상관제시스템’은 도내 모든 순찰차와 교통차량에 영상전송용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도내 주요 지점에 169대의 CCTV를 설치해 입력된 수배차량이 통과할 경우 상황실에 알림으로써 검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열영상관측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해안으로 침투하는 불법자 저지 및 실종자 수색이나 인명구조에 활용하고 있으며 ‘항공영상무선전송시스템’을 통해 경찰헬기가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실종자 수색 및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있다.

불예측성, 불확실성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를 대비하는 제주도경찰청의 지혜로운 준비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시민장의사' (Citizen's Doctor) featuring a doctor's photo, contact info, and a map.

Large advertisement for '에코방수' (Eco Waterproofing) featuring a worker, a diagram of waterproofing, and contact info.